

제34회 충청중국포럼 개최

- 충남 농식품의 대중국 수출구조 변화와 시사점 -

- 제34회 충청중국포럼이 지난 9월 19일 충남연구원 1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. 이번 포럼에서는 충남연구원 송영현 박사가 “충남 농식품의 대중국 수출입구조 변화와 시사점”에 대하여 발표하였다.
- 포럼에는 충남연구원 윤황 원장, 권영현 연구실장, 송두범 미래전략연구단 단장, 도 중화권팀장 및 전문위원 등이 참석하였다.



<그림1> 제34회 충청중국포럼 주요 참석자 및 송영현 박사 발표사진

- 송영현 박사는 2000~2017년 기간 충남 농식품의 대중국 수출입구조 변화를 설명하고, 중국 농식품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충남 농식품의 대중국 수출전략을 제안하였다.
- 우선, 충남 1차 산업 수출입 구조 분석을 통해,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 중국이 충남 1차 산업의 주요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였음을 설명하였다.
- 이어서 중국 농식품 시장의 변화추세와 주요특징을 설명하였다.
 - 2010년대 이후 중국 수입식품시장은 매년 10%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 기준 미화 약 562억 달러의 수입규모를 기록하였다고 하였다. 그러나 중국의 수입식품 원산지 국가 상위 10개국 중 한국은 10위에 불과하다고 말하였다.
 - 중국 농식품 시장의 주요 변화를 2, 30세대가 중심이 된 신(新)소비계층의 소비 증가, 지역별 소비격차 심화, 신규 온라인 시장의 가파른 성장, 온·오프라인을 결합하는 O2O형식의 새로운 유통방식 대두 등으로 설명하였다.
- 또한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중국 수출지원 현황도 살펴보았다.
 - 충남은 90년대부터 운영해오던 상해사무소를 2016년에 폐쇄해 현재는 중국 현지 오프라인 거점을 통한 수출지원은 거의 없다고 하였다.

-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지원도 미비하다 말하였다. 2017년에 중국의 대표적인 C2C 쇼핑몰 타오바오에 충남관을 외부기관 위탁을 통해 개설하였으나, 판매실적이 부진했고 현재는 운영이 중단된 상태라고 하였다.
- 송영현 박사는 사드갈등 봉합 이후, 농식품의 대중국 수출 활성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충남에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.
 - 첫째, 경기 GBC, 전남 상해통상사무소와 같이 현지 오프라인 거점을 마련하고 현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.
 - 둘째, 위챗(wechat) 및 중국 지역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, 역직구 방식을 통한 O2O사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.
 - 셋째, 중국에 우수한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가진 현지업체가 충남의 농식품을 일정규모 이상 수입할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.
 - 넷째, 기업인 대상의 정례화 된 수출교육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.
- 발표가 끝난 후 종합토론에서는 도 및 시군 중국교류 담당자들의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다.
 - 충남연구원 박경철 박사는 중소기업들이 진출 가능한 온·오프라인 플랫폼, O2O 유통방식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강의였고, 향후 3농혁신대학에서 같은 주제로 강의해볼 것을 제안하였다.
 - 도 중화팀 김은숙 주무관은 도의 대중국 교류활동에 있어 온라인 플랫폼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. 특히 국내 대학생, 중국유학생 등 젊은 층의 아이디어를 많이 참고하여 경제, 문화·예술,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활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였다.
 - 끝으로 충남연구원 송두범 박사는 오늘의 주제가 충남 6차 산업 분야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하며, 6차 산업은 아직 국내시장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중국 내수시장도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. 그리고 충남이 농식품의 대중국 수출에만 집중하기보다는, 대중국 수입도 전략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하였다.

※ 본 포럼소식에서 사용한 중국 용어는 기본적으로 중국어 발음을 준용하여 표기하였으나 한자의 한국어 발음이 익숙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표기함

문의 :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 (041-840-1175, quanchfu@cni.re.kr)